

응급의료기관 36곳 57억 지원... 섬지역 응급헬기 착륙장

전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 마련...간호사 파견 사업도 시행

5개 군 28곳에 닥터헬기 가동...도서마을 86곳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남도내 36개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57억원이 지급된다.

또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사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섬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착륙장을 만든다.

전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제4

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맞춰 단계별 지역 중심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를 담은 '2023년 전남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이송 단계에서는 소방서-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지역응급의료협체제를 구성,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의 신속한 응급환

자 이송과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보성,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군 28개소에 착륙장 시설·장비 확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보건기관이나 경찰서·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없는 도서마을 8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단위 병원단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36개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57억 원을 지원한다.

또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에 간호사 파견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전문분야별 단계에서는 중증이상환자 응급수술 및 치료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등 지원을 지속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재난에 대비한 자체교육을 추진하도록 올해 상반기 보건소·소방서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지도강사 양성교육(4회)을 실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보건소장 심화교육과 보건소 자체 재난응급의료 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합의약팀을 응급의료팀으로 개편해 인력을 3명에서 5

명으로 보강하고 응급의료 정책개발·실무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신설도 추진한다.

이밖에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체제를 운영해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부적응 이송 등에 대한 사례 공유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도가 닥터헬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갖춘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도민 건강과 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민주광장 음악분수 가동 언제쯤? 광주시 동구는 지난 14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5·18 민주광장 음악분수 정비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음악분수 설치 계획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시 '정책소풍' 정책 실행률 쑥쑥

시장-시민 현장 소통 성과...자립 등 14개 과제 정책 추진키로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소통정책 중 하나인 '수요 정책소풍'이 '시민 체감형 정책' 구축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년간 22차례에 걸쳐 수요일에 정책 소풍 행사를 열고 복지, 안전, 문화, 예술, 환경, 창업 등을 망라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정책소풍의 첫발은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들의 손을 잡는 것으로 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광주아동복지협회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성장·자립·동행 3대 분야 14개 과제 자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유일의 여자축구부가 있는 하남중앙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정책 소풍 이후에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개방형 거점학교 승인을 받아 선수 수급 문제를 해소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

내 115개 초중고 동계훈련비도 증액했다.

민선 8기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광주다문화 통합돌봄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 병행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치구별 전용 차량 구입비 지원 등 시책이 나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가 됐을 때는 친환경 건축물인 그린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논의했다.

산업안전 현장점검, 자살예방센터 정책소풍은 산업재해·교통사고·자살 등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 실천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의 실마리도 제공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선 8기 광주시는 수요정책 소풍과 함께 '월요대화', '화요오찬', '금요전략회의' 등 소통과 토론에 방점을 찍은 직접소통 대화창구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0건

광주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 조사에서 허위 신고,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40건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지난 3~6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6건을 정밀히 조사했다.

지난해 4~9월 광주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교통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분류한 거래들이다.

조사 결과 모두 40건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계약일이나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등 20건은 각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의심, 미신고 증여, 자금 출처 불분명 등 19건(중복 1건)은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과징금 처분 등이 예상된다.

나머지 2건은 행정 계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동일 요금체계 적용' 찬반 투표 가결...17년 갈등 해소

목포와 무안의 택시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목포 택시의 무안 남약 등에서의 운행도 가능해졌다. 무안 택시 역시 목포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지난 14일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통합이 결정돼 17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577명 중 125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된다.

지난 17년간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수십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약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약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약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와 무안의 택시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목포 택시의 무안 남약 등에서의 운행도 가능해졌다. 무안 택시 역시 목포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6일 "지난 14일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통합이 결정돼 17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577명 중 125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표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 행정기관과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하게 된다.

지난 17년간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수십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다.

전남도는 이에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약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약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약 오룡지구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해상풍력 터빈제작사 '베스타스' 유치 최선을"

최정훈 전남도의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

최정훈(민주·목포 4) 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제 37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사인 베스타스의 목포 신항만 유치(광주일보 6월 30일 2면)와 관련,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인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발전 터빈을 공급하는 최대 기업으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서 한

국으로 이전기로 한 데 이어 목포 신항만에 터빈공장을 짓기로 했었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의 '베스타스의 목포 신항만 터빈 공장 건설 결정' 발표 이후에도 울산이 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선을 중심으로 했던 서남권에 해상풍력 기지재 산업이 추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관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